

Contents

MARCH + APRIL · 2025

시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성숙하게 지켜야 할 민주주의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민주 사회 내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 신국원 04

특집

민주주의 위기와 한국교회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기독교의 위기 | 백종국 06

한국교회와 민주주의 | 최태연 08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의 적인가 | 김선욱 10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천 | 정재영 12

영성의 부재가 K-민주주의의 위기 | 장동민 14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과제 | 김대인 16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 고세일 18

선전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 이상민 20

두려움의 성벽을 넘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길 | 김반석 22

사람 사이

변상욱 (전) CBS 대기자 24

섬김의 자리에서

동역회에 대한 고마움과 만남의 축복 | 박신현 28



2025. 3+4월호 | 제34호(통권 249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정치와 신앙,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박진의 30
너무나도 작은 자를 큰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 기성호 32

청년 일터 이야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 김건우 34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처럼 | 강진구 36

미술을 보다

정치적 삶과 예술적 삶 사이 | 서성록 38

책을 보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 권경선 40

기독교와 극우 정치의 결합에 대한

한 저널리스트의 취재기 | 김재완 42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하여 | 석종준 44

교회 路

예심교회 기독교세계관프로그램 소개

주경신학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 훈련 | 김종호 46

소감문 : 성경적 세계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 김윤희, 김광태 47

온전한 지성

프란시스 웨퍼와 기독교 세계관 | 양승훈 48

제8회 기독교청년학생 북 콘서트

바로 보기, 바로 살기

: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50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민주적인 방법으로 성숙하게 지켜야 할 민주주의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민주주의는 인류가 개발한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세계인 절대다수가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로 모두가 동일한 기본권을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칼뱅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성경 이해에 근거해서 권력 분립을 제도화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매우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가 지배적인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적이란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기독교가 최대 종교인 한국도 지난해까지는 세계 23개의 ‘잘 갖추어진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아 심지어 ‘흠결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밖에 누리지 못하는 미국에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고¹,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도 민주주의 때문이란 사실은 북한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이렇게 소중한 민주주의를 한국에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한국 기독교가 앞장섰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한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처음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했고, 미국 선교사들과 민주 선진국에 유학한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이 민주주의 정치제도 도입을 주도했으며, 반민주적인 독재정치에 가장 앞장서서 항거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민주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후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상당부분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는 주로 인기영합주의와 과대평가된 이념 때문인데, 그 둘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 그리스도인 일부도 극단적으로 이념적이 되어 민주주의의 건강을 위협

1.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는데, 최근에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표방하고 나섬으로 반목이 심각해졌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양쪽이 모두 독선적으로 반민주적이 되는 것 같다.

한국의 보수 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정치문제에서 매우 보수적이 되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비인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북한 정권, 수많은 순교자를 낸 6.25 전쟁,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을 어렵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및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진보정권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보수, 진보 등의 이념을 갖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에 그런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극단적이고 포괄적이 되어서 거의 '신앙'의 차원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다른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비도덕적이고' 심지어는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정죄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감행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이미 2021년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는데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참가했고, 최근 서울의 법원 건물 파손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담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념이 우상으로 변질이 되면 그리스도 인조차도 매우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비기독교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교포 조유진 목사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십계명>이란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디 정당과 동침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듣고 그들과 관계의 다리를 세우며, 쯤대도 없이 주위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또라이'(jerk)가 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념이 무엇이며

현재 상황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인은 정치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따져보고 상대방의 관점을 알아 보지도 않은 채, 돈벌이를 목적으로 떠드는 유튜버들의 말에 현혹되어 매우 독선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미숙한 인격의 전형으로 성경이 반복해서 명령하는 성숙(온전함)이나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화평과 사랑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특히 수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나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확하게 관찰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분명하게 이해하며, 공정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등 SNS가 조장하는 확증편향의 피해자가 되어 잘못 판단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므로 자신과 이웃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소중하다. 그럴수록 철저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며 수호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무지, 독선, 폭력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고 유치하며 자해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과 화평의 방법으로 이룩하고 지켜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민주 사회 내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춘래불사춘, 2월 말이 되었는데도 추위가 물러갈 조짐이 없습니다. 계엄 사태는 나라 전체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경적 관점과 지혜와 용기가 절실합니다. 민주주의는 역사가 오랜 나라에서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물론 시련과 역경이 많았고 지금도 고비를 맞았습니다. <시선>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앙의 이념화를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독선과 감정적 행동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화평과 사랑의 회복할 것을 강권합니다.

<특집>에서 백종국 교수님도 우리 민주주의가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 발전했으나 이제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태연 교수님도 한국교회가 정교분리와 정치협력을 통해 누렸던 이익과 폐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선욱 교수님은 한국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재영 교수님은 정치에 함몰되는 위험을 경계하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공공선의 실현 노력이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장동민 교수님은 영성각성의 소멸이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김대인 교수님은 형사사법의 과잉과 형평성 결여, 정당민주주의의 한계, 극우 세력의 영향을 지적하고 고칠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세일 교수님은 경제 중심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을 육성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판단과 비판을 무너뜨리는 선전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회라도 과열된 여론을 진정시켜 선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설 것을 주문합니다. 김반석 형제님은 교회가 극우 이념에 숙주가 되어갈 뿐 아니라 이기적인 집단으로 떨어진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시대와 대화하며 낯선 타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박진규 교수님이 변상욱 전 CBS 대기자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교차하며 갈등을 쌓아온 역사를 돌아보며, 왜 교회마저 우경화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려 정치 권력과 유착한 것이 지금 지탄받는 원인으로 진단합니다. 일단 교회가 정치에는 손을 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관심사에 집중해 미래를 준비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권력의 변화 방향을 보며, 복음전파와 사회참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우리 동역회의 감사로 섬기시는 박신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학원 시절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스터디 모임 리더로 시작해, 오랜 교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을 꿈꾸는 모든 과정의 감사를 들려줍니다.

〈청년 일터와 시론〉에서는 박진의 형제님이 신앙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세대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찾으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가는 과정을 나눕니다. 기성호 형제님은 이집트에서 공부하며 학생과 사업가로서의 선교적 비전을 찾게 된 경험을 간증합니다. 김건우 형제님은 박사과정에서 체험한 신앙과 학문의 씨름 가운데 믿음의 힘으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매일 소망을 품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강진구 교수님은 권혁만 감독의 영화 〈호조〉가 보여준 도산 안창호와 손정도 목사의 우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 믿었던 두 분 이야기가 역사를 통해 시의적 대안을 보여줘 기독교 영화의 존재가치를 드러냈다고 평합니다. 서성록 교수는 〈미술을 보다〉에서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들〉, 클레어 패티의 〈내 신발을 신고 1마일만 걸어봐〉, 제러미 텔러의 퍼포먼스를 소개합니다. 세 작품 모두 정치로는 불가능한 사회변혁을 타자와의 공감적 상상력이 창조적으로 여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책을 보다〉의 권경선 목사님은 존 스토틀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해야 할 이유를 소개합니다. 김재완 형제님은 팀 앨버타의 〈나라 권력 영광〉이 보여주는 미국 복음주의가 극우 정치와 결합한 배경을 분석하고 저자가 제시한 대안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도록 권합니다. 석중준 선교사님은 최용준의 〈학문과 신앙 및 삶의 통합〉이 호른 판 프린스터와 도에베르트 같은 개혁주의 학자들의 예를 소개합니다.

〈교회로〉에는 세계관 양육 설교와 자체적으로 만든 세계관 교재를 가지고 수련회의 집중훈련을 통해 신앙 교육을 해온 예심교회가 소개됩니다. 김종호 담임목사님은 탄탄한 주경신학 연구를 통해 확립된 성경적 세계관 훈련을 목회의 중심으로 일평생 달려오신 분입니다. 아울러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관프로그램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광태 형제님과 더불어 김윤희 집사님이 실천적인 성경적 세계관 훈련 시리즈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양승훈 교수는 〈온전한 지성〉에서 프란시스 쉐퍼가 ‘라브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룬 현대 기독교 세계관 저서의 저술과 강연 및 활동을 소개합니다. 카이퍼가 계몽주의에 대항했다면 쉐퍼는 인본주의에 맞서 그것이 초래한 서구 문화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모임에서 ‘기독교청년학생’ 독서모임으로 개편된 상반기 북 콘서트 소식도 소개되었습니다.

편치 않은 주제를 마다 않고 귀한 글을 써 주신 필자님들과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애써준 편집위원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어 훈풍을 불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회원들과 후원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기독교의 위기

백종국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민주주의와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사와 교회사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수입과 기독교(여기서는 개신교)의 선교는 19세기 중반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로써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한국 기독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역사를 다채롭게 엮어나갔다.

민주화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에서는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첫째는 교회 부흥에 몰두하는 성장제일주의 흐름이다. 이들은 군사독재와 밀착하여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정교분리를 강조하면서 종교적 권력 증대를 위한 사제주의를 채택하였다. 둘째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온건한 복음주의 흐름이다. 이들은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실천에도 관심을 보였다. 다양한 교육기관과 시민 단체를 조직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조속히 군사독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출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진보 이론을 수용한 급진주의 흐름이다. 군사독재의 분단적 성격, 국제적 자본주의

의 착취 등 총체적 상황의 종식을 희망하였다. 이들의 열렬한 투쟁이 민주화와 남북 관계에서 많은 돌파구를 만들었다.

한국 기독교가 보여 준 심각한 한계는 지도력 양성의 실패이다. 제헌헌법 제정과 민주화 과정이 보여 주듯이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민주적 체제 구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가 도리어 한국 기독교의 계도화를 우려할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첫째 고리는 일제 잔재 청산의 실패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훼손했던 다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분단과 전쟁의 흐름에 편승하여 종교 권력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목회자들이 도리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둘째 고리는 부실한 목회자 양성이다. 교회 부흥기에 수많은 군소 교단이 분립되었고 이들이 자신의 조직 보존을 위해 세운 미인가신학교들은 부실한 목회자를 양산하였다. 이들은 성장제일주의와 이단적 사제주의, 반지성주의에 쉽게 경도되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실패가 목격되고 있다. 전통적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

과 유럽에서 극우 파시스트들이 득세하고 때로 정권을 장악하기도 한다. 파시즘이란 불만을 가진 대중을 선동하고 탈법적인 폭력의 행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운동이다. 나치의 경우가 전형적인데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불만, 대공황의 공포, 우생학, 루터교 신학, 니체 철학, 바그너 음악, 반유대주의 음모론, 지도자 숭배, 나치 친위대의 폭력 등을 결합하여 '민주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최근 미국에서 보듯이 유대인들 대신 동성애자나 이민자 혹은 외국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려움에 떠는 약자들이 강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다른 약자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이나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다. 인종적 동질성이나 경제적 상황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나 봄직한 동성애자와 이민자, 외국인을 향한 극우세력의 혐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성공제일주의적 교회들이 이러한 극우 캠페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일방적인 선전과 노골적인 거짓말, 혐오와 폭력의 정당화가 바로 파시즘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반지성주의이고 왜곡된 신앙에 젖은 교인들과 함께 무지를 도리어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중이다. 한국교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신교 신앙과 민주주의는 본질적 친밀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권 사상, 인간의 죄성에 기반한 견제와 균형,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적 이상 추구, 관용에 바탕을 둔 종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신학적 기반이다. 경험적 자료를 보아도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능성 크다. 니버(Niebuhr)의

멋진 표현대로 인간은 정의의 능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불의의 성향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이 시대에 파시즘의 문을 열어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에 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폭력, 협박, 선동의 비신앙적 행태를 신속히 과감하게 교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목사, 장로, 집사를 막론하고 아무리 신앙적 언사로 포장을 한다 해도 이러한 행태를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복음에 합당한 정치 체제의 쌍두마차임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특정 정파를 고려하여 가치 기준을 모호하게 버무리는 순간 파시즘이 파고들어 대중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셋째, 각종 정보의 비교 대조를 위해 언론의 통로를 확장해주어야 한다. 파시즘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을 뿐 아니라 정보를 통제하려 든다. 그러므로 진실의 파악이 가능한 통로 유지가 중요하다. 신뢰할만한 주요 매체 소개와 더불어 관심 주제에 해박한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목회자 혹은 평신도 세미나 등이야말로 이 혼란의 때에 한국교회가 능동적으로 한국 사회에 제공해야 할 책무 중 하나이다. **FAITH & LIFE**

* 지면 한계로 다 실지 못한 원고 전문은 동역회 온라인판(www.worldview.or.kr)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백종국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전국국공립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21세기정치학회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와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멕시코혁명사> 등 30권의 저서와 공저, 역사가 있다.

한국교회와 민주주의

최태연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은퇴교수 / 동역회 이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막 1:15)라고 선포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심문받으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교회는 이 세상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이 원리를 ‘두 왕국론’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교회라는 두 기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둘은 서로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보완한다는 가르침이다. 차이가 있다면 루터는 국가를 견제하는데 소극적이었지만 칼뱅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경우 불복종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도 같은 구도에서 전개되었다. 구한말 영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복음에 적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했다. 그래서 ‘두 왕국론’을 근거로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교분리’ 원

칙을 세웠다. 국가로부터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로 인해 일제 강점기 한국교회에는 서로 대립되는 두 입장이 공존하게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일제에 항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보수 교회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일제하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담당할 역할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할 만큼 크고 위대했다.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신자들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민주적인 국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교회라고 생각했다. 장로교의 승동교회와 감리교의 상동교회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신자들의 순교의 피가 한반도와 북간도를 적셨다. 서재필을 비롯하여 이상재, 이승훈, 이회영, 이동휘, 이동녕, 전덕

기, 이승만, 김구, 안창호, 김규식, 조만식, 여운형 같은 이들에게 정치와 신앙은 분리될 수 없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다. 그 때문에 일제는 교회를 ‘민족주의자의 소굴’로 규정하고 1930년대 이후 신사 참배와 전쟁 보국의 명목으로 무자비하고 집요하게 교회를 탄압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교회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동시에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의 신념인 ‘기독교 건국론’에 따라 정부 요직에 기독교 신자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기독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명목상의 ‘비정치화’와 실질상의 ‘정치화’라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KNCC와 일부 진보적인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수 교회들은 신자들에게 정교분리를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역대 반공주의 정부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문제는 이 정부들이 예외 없이 반민주적인 독재로 끝났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불법적인 개헌과 부정 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몰락했다. 박정희는 19년이나 집권하면서 경제개발에 성공했지만, 유신헌법을 내세워 종신 독재를 꿈꾸다 피살되었다. 시민들을 학살하고 제5공화국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한국교회는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일제 강점기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교분리 원칙도 일제라는 악마적인 정부 앞에서는 결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와 정치협력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가졌던 보수 교회는 정치적 우대와 교회 성장이라는 대가를 얻었지만,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 정권과 타협할 수밖에 없

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칼뱅이 제시한 정교분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다. 한 국가 안에서 교회와 정치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비판받고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종교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킬 때 교회는 정부에게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 반대로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때 정부는 이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교회와 정치의 바람직한 상호협조와 견제다. 신자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떤 정치 이념도 하나님과 성경 아래 놓여야 한다. 특정 정당이 기독교와 가깝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교회의 좋은 의도조차 나쁜 권력에 이용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극우주의와 극좌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선동과 폭력을 선호한다. 신자들이 이런 세력에 가담할 때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복음은 왜곡되어 버린다.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보여 준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가 정부나 정당을 독선적으로 지배하려는 데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이런 비민주적 행태를 신자들이 앞장서서 시민주도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이때 교회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교회지도자들과 신자들의 도덕적인 삶과 사회적 책임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태연

백석대 신학과 기독교철학 은퇴교수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B.A), 숭실대 대학원 철학과(M.A), 백석대 신학대학원(M.Div), 베를린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서로사랑교회 동사 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해석학의 변증법 Dialektik der Hermeneutik>, <개혁주의와 과학철학>, <종교개혁과 미술>(공저) 등이 있다.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의 적인가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 한국철학회 회장)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 경제 악화와 세계적 환경의 변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만든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 나빠진 의료 환경과 살인적인 독감. 이런 문제들은 정치 뉴스에 휘둘러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가 되었다. 정치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다.

대부분에게 비상계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국회에서의 대처가 가능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막은 것은 지난 세월의 민주주의 학습 덕분이기도 하다. 군대가 시민을 죽이고 장갑차가 시내를 활보하던 때가 있었다. 국회에 모인 시민과 그들의 저항에 총칼로 대응하지 않은 군인은 모두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혼란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이 많으면 위기는 극복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주의’(ism)가 아니라 통치방식, 혹은 국가의 운영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데모크라시는 왕과 귀족 같은 신분 집단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주권이 자기에 있다고 믿는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작동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혼자 지배자가 되려고 폭력을 사용할 때 정치는 소멸한다. 개인들의 합의된 의사가 공동의 삶의 원리가 되고, 사고방식과 생활 습속이 다른 사람들이 충돌하면서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때 정치는 열린다. 다르다고 해서 없애고 처단하려고 할 때 정치는 닫힌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 몇 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개인의 생명과 인권 존중, 언론의 자유, 폭력의 배제, 절차의 수립 등. 이

런 정신과 가치를 집대성한 것이 헌법이다. 국가는 헌법을 최고의 준거로 여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 기관이 미국에서는 대법원이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이다. 분쟁 해결의 최고 기관이 없으면 분열은 영구적으로 되고,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근대 이후로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즘'(ism)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서는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설파하지 않는다. 성서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성서는 왕정만을 언급하고, 심지어 신앙 자세를 왕정의 언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위계가 존중되고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고,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도 없다.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도 한다. 이런 언어와 생각 방식에 익숙한 신앙인이 민주정보다는 절대 군주제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심지어 독재나 전체주의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퇴행적이지는 않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은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교회의 이름으로 광주에 가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뉴스는 개신교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흔들어놓을 만큼 참담한 사건이었다. 동료 교수는 아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그동안 말렸는데 이제 더는 못 말리겠다고 내게 말했다. 다른 동료 교수는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 여기에 썼다가 지웠다. 이제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말로 표현하면 "한국교회는 부패했다."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샌델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부패'라고 했다. 돈 때문이건 권력 때문이

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부패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라는 말을 단수로 쓰고 있다. 그 안에 그들도 있고 우리도 있다. 단수 명사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한, 우리는 이 단어에 책임이 있다. 거기에 쓰여지는 영광과 오욕은 우리에게도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패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와 분별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명철과 지식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순간이며, 더욱 민주적으로 될 도약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던 세력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을 제대로 극복할 때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철학회 회장이다.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에서 정치철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숭실대 학사부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행복의 철학>,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공저), <한나 아렌트의 생각>, <행복과 인간적 삶의 조건>, <한나 아렌트와 차 한잔>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한나 아렌트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정치의 약속>, <공화국의 위기>, 조너선 글로버의 <휴머니티>, 마이클 샌델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공역) 등이 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천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작년 말에 시작된 또 한 번의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철저하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악마화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인들 사이에 SNS를 통해 확산하는 정치 발언과 정보들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가짜 뉴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교회가 정치로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관을 갖는 데에도 큰 걸림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교회와 정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교회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교회들을 관찰하면서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 유럽의 교회들이 국가 교회 형태로 때로는 현실 정치와 결탁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반면에, 미국의 교회들은 개교회 안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바로 교회와 기독교 정신이라는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그가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의 요지이다.

한국교회 역시 전래 초기부터 민주주의 학습장의 역할을 해왔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남녀와 신분의 차

별이 없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활성화되었고, 자발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공공의 공간으로서 수평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이 뿌리내리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는 부서들마다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신앙심에 기초한 애국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국을 엮어낼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이 교회밖에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 역사에서 교회는 민주적인 조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것은 효율을 떨어뜨리고 덕스럽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여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토론의 제 1 덕목은 경청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상대방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견도 조정하고 자기 생각에 부족한 점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얘기를 하고 주장하기만 좋

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른바 ‘구국의 일념’으로 거리에 나서고 있으며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익이나 좌익이나 스스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 너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성이 무엇인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모든 인간 행위자들 스스로가 예외 없이 강력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는 초월의 이상과 경험 현실 사이에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창조적 긴장’ 관계일 때에야 종교가 현실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현실 세계에 동화되어 세속 가치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종교의 본질인 초월의 이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의 이상은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의 가르침 또는 기독교 정신에 다름 아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그 정신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정치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우리 사회에서 개국 초기부터 교회가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치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믿는 바에 대한 도덕적 실천’이라는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모든 국민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란 시민들의 참여,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협의 등과 같은 민주주의 과정 전체를 포함한다. 곧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정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도덕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다. 연세대(B.A., M.A., Ph.D.)에서 공부했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한국종교사회학회 회장, 21세기교회연구소 소장이며,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교회의 미래 10년>, <한국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 <소그룹의 사회학>, <현대한국사회와 기독교>(공저),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공저),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공편),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공저), <교회 인나가는 그리스도인>, <함께 살아가는 마을과 교회>, <강요된 청년> 등이 있다.

영성의 부재가 K-민주주의의 위기

장동민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공동체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거나 공동체주의가 필요하다. 나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가라는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은 나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런 공동체 정신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사나 야합이 아닌, 공동선을 위한 열린 연대다. 특히 위기의 순간 이런 연대가 빛을 발한다. 1980년 광주에서, 1987년 시청 앞에서, 1998년 금 모으기에서,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 2020년 초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역사 속에서 체현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2024년 12월 비상계엄령이 공포되었을 때, 시민들은 추운 밤길을 헤치고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들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 민족에 잠재된 공동체주의 DNA라도 있다는 말인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때 자기를 지키려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행위지만,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은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다. 이런 희생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개인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식만으로 행동이 나오지는 않는다. 인식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는 힘은 영성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은 1919년 3.1운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3.1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이 아니었다. 3.1운동은 민중이 주체가 된 민권운동이었으며, 그 운동의 주체는 계몽된 민중이었다. 한국 민중은 지식인이나 정치가에 의하여 선동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지도자 가운데는 여성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이 다수였다. 이후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자리 잡았고, 4.19와 5.18,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다.

3.1운동의 특이한 점은 그 주체세력이 천도교(동학)와

기독교 등의 종교였다는 점이다.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한 인간 실존의 발견과 이를 통해 형성된 자의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개인주의의 시발점이다. 동학(東學)의 핵심 교리인 '시천주'(侍天主)를 생각해 보라. 천주(한울님)를 모시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동학교도들은 모든 것의 근원인 한울님을 모시는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자각하였다. 자신만 존귀한 것이 아니고, 천주를 모신 모든 사람이,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똑같이 존귀하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실존적 자각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조화에 대하여 세상의 어느 종교나 철학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 준다. 기독교 신앙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다. 죄를 짓는 것도,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개인이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세례의 경우, 세례받는 것은 개인이지만, 동시에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신앙을 가진 개인은 자기의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바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을 섬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신적 존재와의 강력한 만남을 체험하였고, 신적 소명으로서의 자발적 희생을 결심하였다.

우리 민족은 탁월한 두 종교로 인하여 공동체주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학'이 상당 부분 '서학'(西學,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덧붙인다. 후일 1980년대 민주화 시대 때도 종교의 역할은 계속되었다. 정의구현사제단이나 가톨릭 농민회와 같은 천주교 내에서의 운동, 진보적 기독교의 민중 신학 등이 한국의 공동체주의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다. 보수적 신앙인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삶의 현실을 숙고하며 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

의가 위기를 맞았는지 밝히 보인다. 한 마디로 영적 각성이 사라진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이 사라진 지는 오래다. 모든 교과과정에서 종교의 뿌리가 배제되었다. 학교 교육에서 인생의 목적, 삶의 고통과 두려움, 죽음이라는 현실, 미래의 희망과 같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과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놀라운 것은 종교에서도 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 한국 기독교에서 성경적 의미의 영성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타자(他者)에 대한 환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영적 각성으로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영성, 개인의 물질적인 복을 가르칠 뿐, 공동체에 헌신하는 영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신앙의 주체로서의 개인도 사라지고, 음모론에 가스라이팅 된 집단주의가 남았을 뿐이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결합이 너무 공고하여 이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공동체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바로 잡아 진정한 개인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공동체 의식을 잃은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교회의 자양분을 받지 못하여 쇠약해진 한국 민주주의에 암울한 기운이 드리워져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장동민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역사신학 교수이자 인천 흥광교회 담임목사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B.A.)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으로 신학석사(Th.M.)와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남부전원교회와 백석대학교교회(서울)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저서로 <박형룡의 신학연구>, <신학의 심포니>, <대화로 풀어진 한국 교회사 1, 2>, <포스트크리스티안 시대의 한국 기독교>, <광장과 골방> 등이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과제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 구속,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사태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과제를 제시해보도록 한다.

첫째, 형사사법의 과잉과 형평성 결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존재했는데, 정권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대통령도 포함된 이전 정권의 주요공직자, 야당 인사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의 주요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과잉 및 형평성 결여는 여야 간에 타협보다는 대결로 점철되는 정치문화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현 야당이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남발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 원인에는 이러한 형사사법의 과잉과 형평성 결

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당민주주의의 한계 노출 문제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치경력이나 국정 수행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당원들이 단순한 이미지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향이 있다. 현 대통령이 검찰에서의 경력만 존재하고, 정치경력이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이미지 하나로 대권후보로 선출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수행 역량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하는 역량이 중시되는 정치인의 직업 정체성과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 검사의 직업 정체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 대통령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검사로서의 정체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극우 유투버와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영향이다. 대

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 선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극우 유투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극우 기독교 세력을 들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극우 유투버 및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의회에서 폭동사태를 일으켰던 것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부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태를 접하면서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계엄사태 이후에도 양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만약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현 야당이 독주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원인들은 야당 측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정권교체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든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당내에서 내기 힘든 점이라든지, 편향된 유투버들을 통해 정치적 선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문제는 야당 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형사사법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사사법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의 황금률,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정신이 형사사법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공정

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경우 이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사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후보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지에만 현혹되어 정치적 경험이나 국정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 선거의 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편향된 유투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선동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투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평이 있는 언론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접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것,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이름으로 정치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적 견해를 갖고 개별 정당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정치세력화할 경우 성경의 정신이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변호사 활동 후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이화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광명교회 영어 예배부 부장집사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해 12월 3일 계엄으로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사회는 두 개로 쪼개졌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다. 이런 질문을 한다. “우리나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 K-Pop, K-Drama와 같은 K시리즈가 세상 곳곳에 스며들고, 많은 국가가 한국을 경제·문화 선진국으로 여긴다. 전통적인 여러 기독교 국가는 선교와 신앙의 모범국가로 한국을 든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 근대 역사에 교육, 의료, 봉사 등 많은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은 실로 컸다. 척박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많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교회 공동체가 교육, 의료, 봉사의 중심이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길러진 많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 기초가 되었다. 3·1 운동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컸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와 근현대사의 아픔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끼친 부분도 있다.

나는 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친다. 민법 교과서에는

‘교회 분열’을 다룬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기존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기존 교회와 새로운 교회 사이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주제이다.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다루는 교회 분열의 사건은 아주 많다. 그래서 민법에서 교회 분열은 재산 관계를 다루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부 시민은 건강한 교회, 선동하는 교회, 이단 교회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그들만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겪는 분열과 갈등 상황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양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 전쟁,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경제 양극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 출산율 저하가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닐까?

‘가정교육’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교육의 덕목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정교육으로 여긴다. 어느 곳에서도 가정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갈수록 경제 중심으로 치닫고,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얻는 쪽으로 나아간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도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낀다.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러 오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마 20:28).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ἐστε, 에스테)라고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마 5:13-14).

세상이 혼란스럽다. 교회 공동체는 민주 사회의 기초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 주었으면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잠 9:10),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로고스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세상의 상황을 말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했으면 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법(율법)이 신약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한다. 법학을 공부하는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르침(토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법치주의’의 시작으로 여긴다. 법은 차가운 규범이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마 5-7장)에서 하나님의 법의 본연의 뜻을 설명하신다.

12월 3일 계엄으로 많은 시민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고 한다. 많은 시민이 법치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요사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다.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법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존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라고 힘주어 말한다(롬 13:10).

서구 근대 사회의 많은 법 제도는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며 섬겨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길러내야 한다. 나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여긴다. 분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구원, 은혜, 사랑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때, 우리는 근대 역사에서 이루어낸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행 11:26),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요 14:23). **FAITH & LIFE**



✍ 글쓴이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미국 버지니아대학, 툴레인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고, 미국 툴레인 대학에서 법학 박사(Ph.D.)를 받았다. 현재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M.Div)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전산성교회 영어예배팀장, 충남대학교 기독교수회 기획이사과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선전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실행위원)

오늘날 선전은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언론 매체,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선전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어떻게 해서든 유권자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어떤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반대 정당을 헐뜯고 비난하려고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정보조차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허위 정보일지라도 선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발표하고 대중에게 주입하면, 대중은 허위 정보를 의심하면서도 거듭된 세뇌를 통해 마침내 사실로 믿는다. 특히, 선전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분명하고 단순한 설명이 제시되고, 개인의 주관적 인상은 집단적 확신이나 신념이 된다. 이처럼 선전을 통해 비판 정신과 자율적 판단이 사라짐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에 확증편향이 생겨난다. 특히, 비교적 검증장치가 있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음으로써 확증편향이 깊어진다. 개인이나 집단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선전을 통해 강화되고 굳어지면, 개인이나 집단은 이를 옳다고 확신한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강할수록 선전을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은 더욱 강화된다.

어떤 사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하면, 선전을 통해 이 사실과 관련하여 여론이 형성된다. 대부분의 대중이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더라도, 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도 선전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하찮고 의미 없는 사실로부터,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부터 온갖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 정치적 문제에 큰 중요성이 부여되는 식으로 여론은 조작된다. 그런 상황에서 대중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기 원하고, 정당은 이미 ‘팬덤’(fandom)이 되어버린 지지 집단에 의해 휘둘리고 만다. 특히, 자기 정치진영 세력의 힘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현상은 정치가 일종의 종교가 되어 버린 것을 잘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정치진영을 문제 삼거나 비판하는 것을 지지 집단은 절대로 참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현실 정치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선전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정치 집단이나 정당 사이에는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며, 심지어 상대에 대한 멸시와 증오뿐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정상적인 논의나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대에 대한 오해와 이로 인한 적대감만이 쌓여갈 따름이다. 이처럼 상대와 경쟁자를 자신을 해치려 하는 일종의

적으로 간주하면,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토론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은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의 등장을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 중 하나라고 보았다.¹ 결국, 선전의 힘을 빌려 상대와 경쟁자를 적으로 내모는 선전 활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이처럼 선전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정치적 논쟁의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적 문제는 지나친 열정과 과장된 여론에 의해 끔찍하게 왜곡되어, 비교적 단순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대립하는 정당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심한 모독을 가한 나머지 정상적인 해결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단지 한 정당의 승리만을 고집하며 불관용과 부당함만이 지배할 따름이다. 특히, 정치 집회가 열릴 때마다 군중을 선동하고 여론을 격화시켜 군중을 어떤 것에 적대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격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 갈등이 폭발하고 증오와 비난이 확대한다. 그리하여 흥분한 여론의 개입을 통해 입장을 되돌릴 수 없게 되고,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화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 각자가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도록 서로 이해하게 하면서 지나친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여론에 의해 조작된 대중의 감정은 늘 분노에 휩싸여 편파성만을 만들어 내기에, 그리스도인은 여론을 진정시키고 억제하면서 여론의 열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1. 박세연 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크로스, 2018.

고립되고 고독한 개인에게는 공동체에 편입되어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려는 욕구가 있다. 아울러, 누군가와 함께 이데올로기적이고 감정적인 소통을 경험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선전은 이런 개인에게 곧바로 다가가 빠르게 내면을 점령하기에 개인은 선전에 무기력하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자각하고 판단하는 개인은 선전 행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전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개인이 ‘참된 신앙’을 토대로 견고하게 구성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외부 영향이나 선전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런 신앙 공동체는 선전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환경을 이루기 때문이고, 대중 선전에서 중요한 심리적 오염에 쉽게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집단적 영향과 사회적 풍조를 훨씬 덜 느끼게 된다. 반면,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은 무분별한 대중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결국 선전이라는 권세의 영향 아래 놓인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써 개인을 선전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선전이라는 권세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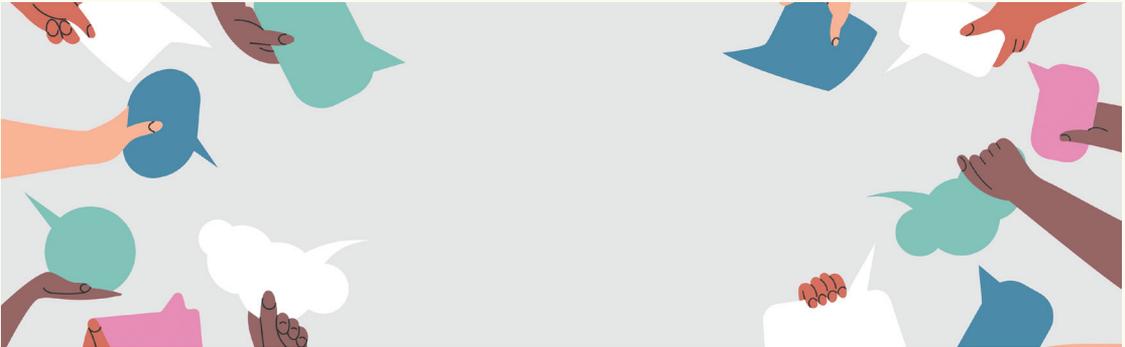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역회 실행위원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크 엘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 2권>(공저),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공저) 등이 있다.

두려움의 성벽을 넘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길

김반석 (도쿄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12월 3일, 그날의 실체는 너무나도 명징했다. 야당의 폭거를 비판하던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기와 각종 교전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짓밟는 모습을 모든 국민이 지켜보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갈등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서,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를 점령하려는 반헌법적인 시도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많은 시민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 앞을 지키며 군인들의 진입에 저항했고, 이후로도 수많은 이들이 헌정 회복을 위해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불과 한달여 전, 10월 27일에, “동성에 악법에 맞서 나라를 지켜내자”라며 200만 성도들의 모임을 부르짖던 사람들이다. 교계의 위기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하자던 이들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에는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

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며 교회는 철저히 핍박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보수 개신교의 인사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 개신교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입에 올리는 반체제 극우세력의 숙주로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국교회가 가진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조직적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낸 경우는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이 제기되던 상황에 국한되었던 것 같다.

1. 여기서 ‘한국교회’는 한국의 개신교에서 보수적인 세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작금의 여러 문제를 ‘보수 개신교’의 일탈로 타자화하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담기 위해 사용한 용어를 밝힌다.

2000년대 초반의 단군상 철거 운동부터 사학법 개정 반대, 종북 주사파 척결, 이슬람 반대,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 반대, 그리고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 제한 반대까지,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이슈들에 대한 즉자적인 반대로서 나타난 것들이다. 반면,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와 정치경제적 변동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지탄받았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시대와 호응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종교, 혹은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비뚤어진 공포심은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대한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재 정권 시기 ‘유사 크리스텐덤’을 구축하며 천만 교세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²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한 도전에 정직하게 직면하며 성찰과 개혁에 나서기보다는, 외부의 적들을 때리는 데만 급급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북 주사파, 네오맑시즘의 흐름’ 등에 맞서서 교회의 바운더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만 매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세상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대 교회를 지키는 우리’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바라보는 비뚤어진 이분법적 세계관에 갇혀 버린 한국교회는, 각종 음모론의 인큐베이터가 되었고, 정치적 분열의 최전선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를 좀 더 되감아 보면, 한국의 개신교는 수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희망을 노래

했던 종교였다. 구한말의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교육과 구제에 힘쓰며 민중들을 일깨웠고, 식민지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 이면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와 빈민들을 돌아보았고, 공의와 사랑을 부르짖는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운동의 초석을 닦았다.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시대적 사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만의 목소리로 시대의 불의를 고발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러한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시대와 호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이익집단으로 쪼그라들어 버렸는가?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선포하였다(요일 4:18). 두려움으로 쌓아올린 성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 끊임없이 적대자들의 전선을 확장하며 스스로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수세적인 자세를 벗어나, 시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낯선 타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빛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와 동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석사과정에서 한국 청년들의 지방 이주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높은뜻오차노미즈교회에서 유치부와 통역부를 섬기고 있다. 2022년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새물결플러스, 2021.

민주주의 위기와 한국교회 변상욱 (전) CBS 대기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비상계엄 자체나 탄핵과 내란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판단에 머물지 말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치열한 여정을 통해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또 앞으로 꿈꿔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토론해야 할 때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그 여정에서 보여준 영욕 역시 철저한 성찰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람 사이'는 신앙인으로서 42년째 일선에서 한국 사회를 관찰, 분석, 평가하며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는 언론인 변상욱 대기자를 만나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어
박진규(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후 4시
장소
서울여대 인문사회관 909호

* 지면 한계로 다 실지 못한 인터뷰의 전문은
동역회 온라인판(www.worldview.or.kr)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진규 변 기자님께서서는 1993년부터 재직하신 CBS에서 2019년 정년퇴직 후, YTN과 TBS에서 앵커로도 활약하셨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변상욱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미디어, 정치, 시사 비평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강연도 많습니다. 42년째 준현역에 가까운 셈이죠. 또,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이고, NCKK 미디어 위원회 전문위원 등 교회와 저널리즘을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저널리즘은 제 삶의 두 기둥이죠. 이걸 결국 사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작업이어서, 사회과학적 연구자로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박진규 오늘 그 연구자로서의 혜안을 듣고자 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이

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상욱 결론부터 말하면 위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약할 기회를 놓친 상황이지요. 이번에 국회가 해산되고 권력 체제 자체가 무너졌다면 위기였는데, 지금은 헌법에 따라 계엄령이 해소되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작업 중입니다. 잠깐의 퇴행이나 반동이지 위기는 아닌 거죠.

박진규 그렇다면 비상계엄 이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변상욱 그렇죠. 통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방 이후 공백기와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고, 이후 문민정부로 가는 과도기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반동과 갈등이 뒤섞이는 시

대가 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혁파와 혁신을 부르짖는 과정에서 보수의 상처가 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다시 안정과 변영 쪽으로 틀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젠다를 갖고 막 달려가야 할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말이에요. 적폐 청산 과정에서 나라를 뺏긴 듯한 보수 우익 쪽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우파적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옵니다. 결국 혁파와 혁신의 시대, 안정과 변영의 시대, 다시 적폐 청산의 시대, 다시 우파 국가 개조론 이렇게 앞치락뒤치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가 2~30년 동안 쪽 합의한 사안, 예를 들면 민주화가 있죠. 다수 국민이 지지한 민주화였는데, 이젠 형식적 민주화나 절차적 민주화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선진화로 가야 하는데 뚝 끊겨버린 거죠. 진보 진영이 부르짖은 혁파와 적폐 청산에 밀리던 보수 진영이 끄집어낸 아젠다는 미래 지향적이거나 비전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들 위기에 맞대응하는, 좀 퇴행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교류가 원활해지고 진보 진영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 선언문이 나오니까, 반공 이념을 토대로 하던 보수 진영에서 세 집결을 위해 한기총을 내세우죠. 게다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을 겪으니까 더욱 격해지면서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로 빠집니다. 뭔가를 적대적으로 놓고 세를 결집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겁니다. 이슬람과 난민 문제, 성 소수자 문제, 언제나 잘 먹히는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의 맨 앞 의제로 계속 밀고 있는 거죠.

AI 시대의 종교, 경제적 양극화 시대 빈곤의 문제, 젊은 세대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지, 또 기후 위기까지 수

많은 의제가 있는데, 계속 성 소수자, 이슬람, 남북 이데올로기 대결로 몰고 가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가 극우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데, 그걸 보수 기독교가 확실하게 단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수 기독교 진영이 우경화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완성한 것과 마찬가지로는 점에서 한국교회와 관련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드러난 거죠.

박진규 보통 지금을 '87 체제'라고 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를 일컫잖아요. 그 성취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일정 역할도 있지 않았습니까?

변상욱 사실 조선조에서 식민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어요. 기독교를 전파해 준 것, 근대 문물을 처음 전해 준 것, 일본 식민지 해방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모두 미국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상당한 경의심을 가졌는데, 그 흐름 속에 다 기독교가 있거든요.

지배이념으로 들어온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통로가 기독교였으니 절호의 찬스들이 있었는데 못 했어요. 교권이 반성해야 해요. 교권이 자꾸 밀실에서 정치 권력을 만난단 말이에요. 결국 지배 세력을 향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를 지키자는 게 대세였어요. 시대 정신이나 친일 문제에 더 엄격했다면 한국 교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엘리트 위주, 자본가 위주로 세상을 돌리려는 권위주의 정부의 일본 친화적인 정책, 산업화 정책, 재벌 위주의 드라이브와 수출 위주 경제와 이해관계에 맞는 거예요. 교권은 역시 현실 정치 권력하고 유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70년대 초로 넘어가면서 유신 반대를 세게 하던 가톨릭이 박정희 정부로부터 내침을 당하자, 이때 개신교가 1973~4년부터 개신교 민주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80년대는 아예 종로 기독교 회관에 국민운동 본부가 세워질 정도로 개신교가 주축을 이루는 거죠.

NCC 가맹 교단 일부가 민주화 운동을 떠맡고 나섰어요. 한쪽에서는 NCC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보수 교회들은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그리고 북한 동포 돕기 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보수 교회들도 누구나 공감하는 대의명분이 뚜렷한 주제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성격에 따른 정책적 대결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후 보수 기독교 진영은 계속 실패를 거듭했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밀어줄 때마다 탈이 났으니까. 보수 기독교 진영이 밀었던 대통령을 다 잃게 된 거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저 집단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를 묻게 됩니다. 시대 정신과 국민적 합의의 흐름 속에서 항상 헛다리만 짚는 한국 개신교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단 말이죠.

박진규 지금은 정책적 아젠다로 경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상실한 것인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변상욱 한국에서 정치는 항상 사회 속에서 도덕률을 구현하는 도구적 행위였어요. 그래서 정파로 양분되기 쉬운 거죠. 둘 중 하나는 틀리고 둘 중 하나는 옳은 거예요, 도덕의 문제고 교리의 문제니까.

박진규 진보, 보수 양쪽 다 마찬가지네요.

변상욱 그게 우리의 정치적 DNA인 것 같아요. 교회나 정치나 분열이 많고 적대적인 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도대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동전의 양면이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잘못되고 어긋난 거는 못 참는 거죠. 유교의 기본은 하늘

의 성실함이에요. 하늘이 세상과 백성을 보살피는 데 조금도 소홀함과 게으름이 없다고 믿는 거죠. 하늘이 그럴진대 위정자가 이걸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냐 하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아파하시면서 세상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박진규 그런 유교적 DNA, 유교적인 상상력은 사실 좁은 교리적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고와 감수성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를 너무 좁게 접근하고 선교, 전도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변상욱 맨 처음 기독교가 전래했을 때, 천주라는 개념에 익숙했던 조선의 지식인들 생각에 비춰보면 기독교 사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복음주의자를 만들까에만 몰두했어요. 자잘한 도덕과 한국만의 토착화된 민속이든 무속이든 문화,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쓴 거죠. 젊은 선교사들이 역사와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박진규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 전개 속에서 개신교의 잠재력이 너무 좁게 규정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동시에 여전히 개신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전망해볼 수 있겠네요.

변상욱 한국인의 DNA 속에 자리 잡은 유교적 전통과 개신교 신앙이 매칭만 잘 되면 사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식민 지배를 어떻게 무사히 벗어날까만 고민하다가 그 기회를 놓쳤고, 또 군부를 동원한 정권에 늘 머리를 조아리면서 친 권력이 되는

데,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예언자적 사명을 상실하게 된 거죠. 또, 너무 교회 키우기에 열중하다 보니 대형 교회와 자본 때문에 국민에게 또 밍보이기 시작어요. 그렇게 코너에 몰리면서 25% 정도 비중이라면 우리도 아예 정치 권력화하자면서 기독교 정당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행동대장이 장경동이나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결국 돈과 성공 위주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대형 교회들의 성공주의와도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 와중에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기독교의 극우 세력들은 세를 확보한 거죠. 그전까지는 '기독교 극우'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기독교 보수가 다시 극우와 보수로 나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토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박진규 교회에서 토론과 질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변상욱 목사가 교리를 전파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개교회는 노회한테, 노회는 총회한테, 교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반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비판적 의식과 토의가 사라지는 비지성적인 문화가 교회를 뒤덮게 되었어요.

박진규 민주화 과정에서 개신교가 역할을 했던 당시의 기독교 지형이 있었다면, 지금의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만들어야 할 지형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상욱 일단 진보든 보수든 정치에서는 손을 뗐으면 좋겠어요. 정당은 정파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념에 따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제도를 연구하는 성격을 갖는데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너무 유착되어 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세대들은 정파가 아니라 이슈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

번엔 개혁과 탄핵이었다면 다음엔 일자리와 주거 문제, 계급의 문제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기후와 환경과학 등 미래의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다음에는 파워 시프트, 즉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군부 무력에서 돈으로 갔다가 지금은 정파로 갔어요. 이제는 다시 시민한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뭘 할 건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군사력, 돈의 힘, 엘리트 정치의 힘, 이 모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의 거리가 멀잖아요. 교회는 이 사람들한테 가야 합니다. 그게 살길이에요. 그들한테마저 버림받으면 교회는 진짜 힘과 돈과 정치에 그냥 종노릇밖에 할 게 없어요. 또,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려면 사회과학적 공부 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역사의 흐름을 못 읽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크게 질타받는 일이 더 반복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과 개교회에 더 섬세한 정책들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개교회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는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 결국 또 정치 권력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지역과 작은 개교회들을 살리는 건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지역 자체를 살리는 데에 교회가 뛰어드는 문제, 그래서 지역과 지역 교회를 같이 살리는 문제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트랙을 다시 잡는 게 시급합니다. 복음 전파와 구제 이런 순수 복음 쪽 트랙과 동시에 사회 참여 쪽 트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YMCA든, 기운 실이든 또는 기독교 환경 운동이든 사회 운동의 가교 역할을 할 집단들이 다시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복음 전파와 구제, 이건 얼마든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늘 해왔던 일인데, 환경이든 사회 정의의 문제는 경험을 쌓은 기독교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투 트랙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FAITH & LIFE

동역회에 대한 고마움과 만남의 축복

박신현 (고신대학교 영어과 교수 / 동역회 감사)



작년 하반기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 이사회로부터 감사로 섬김을 권유받았을 때 문득 떠오른 것은 동역회에 대한 빛진 마음이었다. 동역회는 내가 그리스도인 교수로서 정체성과 방향성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빛진 마음을 간단하게나마 표현하여 현재 비슷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랫동안 외부기관에서 섬김의 제안이 있었을 때마다 정중하게 고사하였던 내가 이번 동역회의 감사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동역회,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학문연구회와 합병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에 대한 빛진 마음이었다.

이러한 빛진 마음의 시작은 나의 20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삶의 의미 및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례로 40대 초반의 늦은 나이

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게 된 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비그리스도인 교수의 영시 강의를 수강한 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또한 대학원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논문 발표장에서 논문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핵심 주제로 제시했다는 이유로 시간을 마치 중세로 돌리려 한다는 뉘앙스로 논문을 평가하는 한 심사위원 교수의 심사평을 듣고 나의 기독교 신앙과 학문 사이에 심한 괴리감을 느꼈다.

이러한 고민의 정점에서 나는 스스로 동역회(당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당시 경북대에 계셨던 양승훈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하루는 양 교수가 동역회 회원들을 학교 뒷편 한적한 마을에 있는 아담한 한옥으로 초대해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그때 삼겹살을 구웠던 돌판은 양 교수가 퇴근하면서 건축현장에 버려진 것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날 삼겹살을 함께 먹으며 나는 대화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각 학문 분야별 스터디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문학 분야의 스터

디 모임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도치 않게도 당시 대학원생이던 내가 스터디 모임을 이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소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에 나는 개인적인 갈급함이 너무나 컸고 삼겹살을 대접받은 것에 대해 조금은 보답해야 한다는 미안함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나에게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역회에서의 배움은 내가 고신대 교수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에서는 대외협력처장과 한국어교육원장으로 섬길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고, 대외업무와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통해 나의 섬김은 지구촌으로 지경을 넓히게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차세대기독교인재 양성'의 필수적 내용도 내가 동역회를 통해 기초를 다진 기독교 세계관 및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주제였다.

시간이 흘러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시기에 나에게 대학캠퍼스 선교를 위한 대외적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다. '부울경기독교수선교회'(이하, BCPN) 회장과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이하, KUPM) 회장 등 위부단체 활동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 본인이시고, 혹시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내가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KUPM 회장을 섬기면서 다시 한번 신앙과 학문의 통합 사역의 협력을 위해 동역회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KUPM 산하 '신앙과학문위원회'이다. 이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남대 캠퍼스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섬기고 계시는 한남대 박문식 교수가 선임되어 양단체의 가교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젊은 시절에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 신앙과 삶의 조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때 동역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유익한 배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 교수 사역, 외국인 유학생 사역, 국내외 대학캠퍼스 선교사역을 무난히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혹시 나의 젊은 시절과 비슷한 고민을 지닌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있다면 스스로 동역회의 문을 두드리서 아름다운 만남과 유익한 배움을 가질 수 있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신현

고신대 영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운대 소명교회 은퇴장으로 섬기고 있다. 고신대 대외협력처장과 한국어교육원장을 역임하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차세대기독교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감당했다.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회장을 역임했고, 초대 선교위원장으로 섬기면서 KWMA와 함께 교수선교사 훈련과 파송 사역의 기초를 놓았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정치와 신앙,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박진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부생)

작년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으로 국론은 둘로 나뉘었다. 내가 속한 서울대 공대의 많은 학생은 평소 정치에 무관심하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했던 학생들조차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논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전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일부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 정치적 이슈로 인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정치적 색깔로 먼저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은 의문이 생겼다.

올해 초부터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모여 신앙 관련 서적을 읽는 독서 모임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싶은 학생들이 모임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곤 했다. 나는 선부르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내 생

각이 아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던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이 말씀이 생각났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나 옳지 않으나 질문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바치라고도, 바치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이 땅의 나라에서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주변을 둘러보면 정치를 종교와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선악이 명확한 영적 싸움과 달리 정치적 문제를 단순히 선악의 구도로 보기는 어렵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정치에 통해 실현해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많은 신앙



의 선배들이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영국 노예무역 폐지에 평생을 바친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 당대의 노예무역은 영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정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며 노예무역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에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윌버포스의 사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때로는 대중적 인기보다는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려운 선택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권력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정의롭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해보며 나의 삶을 돌아봤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을 생각하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나도 세속적인 정치의 당파 싸움에 영

향을 받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면 내 삶에도 그러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음을 깨닫고 많이 반성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벧후 3:18). 나는 아직 학생이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정책이나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뿐이다. 그리고 좋은 정책이 많이 세워지도록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서울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배우며 계속해서 자라나고 싶다. 서로 다른 생각을 경청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탐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민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공부해야겠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자라나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도록,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실 것을 믿는다. 나 또한 그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계획에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자라나야겠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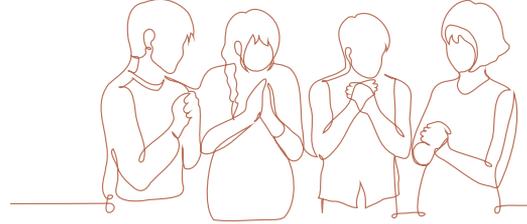


 글쓴이 박진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부 3학년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2024년 말에 새롭게 생긴 '서울대 기독교학생 북클럽'(학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너무나도 작은 자를 큰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성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어 전공 학부생)



나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신앙적 방향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023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을 이집트에서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 살며 시간을 보냈다. 이집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 너무나도 작은 나를 사용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잠시 이야기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자기혐오와 자기 비난이 매우 심했고, 자존감 또한 많이 낮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 후 자기혐오를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주변에 잘나가는 사람들에 비해 내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겁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어떠한 자격증, 어학 점수 등 스펙 하나 없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될 만큼 일머리가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었다. 청년의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다.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새롭게 출석하게 된 교

회와 교회 네트워크는 중동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가진 채 드린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나에게 SM(Student Missionary)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담임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SM으로 중동국가에 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목사님을 통해 이집트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었다. 나는 다른 중동국가와 SM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를 이집트에 비즈니스 인턴으로 보내셨다. 주님의 일하심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집트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교 훈련이었다. 이집트에 입국하고 5개월이 지난 후 '애급한인선교센터'(SCTS)에서 진행되는 6개월의 선교 훈련을 수강했다. 당시 신청자는 나 혼자였고 센터 한인 선교사님 4분과 현지 스텝 4명의 섬김을 받으며 수강했다. 섬겨 주시는 선교사님 중 이집트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제일 적은 분이 십몇 년이었고, 가장 많은 분은 40년이 넘는 분이었다. 이집트에 거주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분들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나 하나를 위해 그분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 가운데 6개월간

의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BAM(Business As Mission) SCHOOL이었다. 나는 살아온 평생동안 사업은 절대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즈니스 인턴으로 이집트를 가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현장에 가보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통해 파리에서 진행되는 BAM SCHOOL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집트에 와서 비즈니스 관한 나의 생각을 선교사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나에게 “성호야 너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시는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록 마음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다짐을 했고 BAM SCHOOL을 신청하게 되었다. BAM SCHOOL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강의와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참가자들 각자의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집트에 가기 전, 선교훈련을 받기 전, BAM SCHOOL을 가기 전 나는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민폐를 끼칠 것에 대한 걱정, 정식 선교사도 아닌 고작 학생인 나 하나 때문에 시작된 훈련으로 바쁜 선교사님들의 시간을 뺏는다는 죄송함, 사업에 대해 무지한 나의 태도, 발표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에 대한 걱정 등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것도 꽤나 성공적으로. 선교훈련 마지막 시간에 나만의 선교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며 6개월간의 훈련을 은혜 가운데 수료했고, 나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발표가 끝난 후 강사분들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다른 부분에서도 진지한 피드백

을 해주셨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어느 날 밤 어떤 사건으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방언으로 기도 하시면서, “너는 너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여기고 작은 자로 여기지만, 나는 너를 큰 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이집트에 와서도 내 스스로를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작은 자로 여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깎아내리고 자책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큰 자로 세우셨다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통곡하며 울었고, 온몸이 흔들리며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선교사님은 바닥에 나를 눕히셨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기도하며 마쳤다.

이집트를 다녀온 지금도 나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큰 자로 세우셨음을 계속 선포하며 내 두려움과 걱정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큰 자로 부르셨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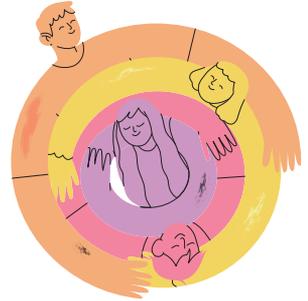


 글쓴이 기성호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교직과정은 이수 중이다. 부산하나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며 청년부 리더이자 간사로 섬기고 있다. 2023년 3월 청년의 때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선교지인 이집트로 나갔으며 약 1년 4개월의 시간을 비즈니스 인턴으로 섬기고 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김건우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나는 어려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간증을 들으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게 되었고 신앙도 생기게 되었다. 당시는 너무 어렸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겨우 인정하는 정도였다.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신앙생활도 학창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던 어느 날, 내 안에 죄성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되는 날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날이었다. 그 날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라는 말씀이었다. 그날 나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뼈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그날 비로소 나의 신앙은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나는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박사가 되리라 생각을 했었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박사가 되리라 늘 생각해 왔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고 그렇기에 진로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대개 학부 4학년이 되면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하면서 각각의 길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따져보고 선택을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았다. 그렇기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크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삶은 순탄하게 흘러가리라 막연히 생각했었다. 매우 순진하게도 말이다.

대학원 생활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나는 학부에서 신소재를 전공했지만 기계공학 과목들을 좋아하여 신소재공학과 연구실 내에서 기계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실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마땅한 연구실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기계항공공학부 내에서 신소재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소재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연구실 내에 이런 업무를 수행해본 선배는 아무도 없었기에 누

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좌절 속에서 과연 박사과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끝없이 의문을 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다.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연구를 해냈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한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대학원 생활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실험 결과는 늘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논문은 계속 거절되었고 남들은 저만치 앞에 가 있는데 홀로 뒤처지는 기분이었다. 반복된 좌절을 겪게 되니 삶에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QT 말씀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당시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었다. 회당장 아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을 고치기 위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으나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놀라웠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막5:39)라고 하시며 “달리다굼” 하며 아이를 깨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비록 삶의 소망이 죽어버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붙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죽은 것만 같아 보였던 소망은 살아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 아기코끼리 예화가 생각이 났다. 코끼리는 몸집이 육중하고 힘이 세 기때문에, 큰 코끼리를 사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사육사들은 코끼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비결은 바로 코끼리를 아기 때부터 사육하는 것이다. 다리에 쇠사슬을 채워 말뚝에 묶어 두면 아기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아기코끼리는 번번이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반복된 실패 속에 코끼리는 자신이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코끼리가 다 큰 후 충분히 쇠사슬을 끊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 사육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 예화에서 나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된다. 첫 번째는 과거의 수많은 실패가 현재의 실패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과거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내가 현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실패자로 살게 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좌절을 겪었더라도 다시 심기일전하여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 고린도후서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고 말이다. 더는 과거에 넘어져 좌절하던 내가 없고 앞으로 승리를 누릴 일만 남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힘든 대학원 생활이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건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숭실대에서 ‘유기신소재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석박사통합 과정에 진학했다. 재료공학과 기계공학 사이에, 공학과 인문학 사이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구촌교회 청년이며, 서울대 기독대학원생 북클럽 멤버이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처럼

- 권혁만 감독의 <호조>(2025)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

권혁만 감독의 신작 영화 <호조>(互助, 2025년 3월 12일 개봉 예정)는 어둠과 혼란의 시기에 빛났던, 도산 안창호(1878~1938)와 해석 손정도 목사(1882~1931)라는 두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의 우정과 독립을 향한 열정을 담은 작품이다. 두 사람은 모두 모두 평안도 강서 출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 믿는 사람들이었다. 영화는 이 두 사람이 1910년 이전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되어 의기투합한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후 둘은 손 목사가 먼저 소천할 때까지 20년 넘게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상하이와 지린 등지에서 다양한 항일 민족운동을 같이 하였다.

손정도 목사의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이다. 현충원의 손제독 비문의 1/3은 아버지 손정도 목사에 대한 글로 채워져 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손 제독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란 가훈 속에서 자랐다”

영화 <호조>는 어린 손원일이 어려서부터 안창호 선생과 아버지 손정도 목사를 지켜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아니랄까 신앙과 애국이 일치된 삶은 변함이 없다.

시대에 울림을 주는 기독교 역사 뮤지컬

영화 <호조>의 특별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



국 영화계의 불황 가운데서도 기독교 영화의 존재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영화계는 단편적인 외화 수입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를 연출해 온 권혁만 감독이 KBS를 퇴직한 후 본격적인 영화제작에 뛰어들어 뮤지컬 영화를 연출했다는 사실은 기독교 영화계로서는 큰 기대와 더불어 기독교 영화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는 뮤지컬 장르를 택하여 대중성을 높인 일이다. 권 감독은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루었던 한국 기독교 영화계에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2015)과

〈일사각오〉(2016)를 통해 드라마를 요소요소에 삽입시킨 '팩션 드라마'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머슴 바울〉(2022)에 와서는 뮤지컬 장르를 결합하여 기독교 영화의 형식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도 했다. 이제 완벽한 역사 뮤지컬 영화를 탄생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지금까지 공연무대 위에 올려진 뮤지컬을 영화한 일은 있어도 오리지널 역사 뮤지컬은 〈호조〉가 처음이다. 웃음과 의미있는 메시지가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된 노래와 춤은 잠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딱딱하기만 한 기독교 역사가 풍부한 감성을 타고 온몸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MZ 세대들의 눈높이도 맞출 수 있다.

셋째는 시대적 상황을 읽고 역사적 인물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에 있다. 안창호와 손정도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기독교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대안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1927년 손정도 목사는 길림교회와 맥목현교회를 목회하면서 영화 제목이기도 한 '호조(互助)'가 뜻하는 차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를 돕고 살리는 '농민호조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하듯 자신의 소유 모두를 내놓는, 즉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농촌운동을 뜻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꿈꾸다

무엇보다도 손정도 목사는 분열된 임시정부의 현실 속에서 민족의 큰 꿈을 제시하며 좌우 사람들의 마음과 존경을 얻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 손정도 목사의 활동 범위가 얼마나 넓었고, 그의 포용력이 얼마나 컸는가는 그와 교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덕주 전 감신대 교수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현순, 하란사, 송병조, 배형식과 국내외에서 같이 일했으며,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에는 안중근의 가족과 같이 살았고, 여운형, 노백린, 김규식, 이동

녕, 이시영, 이동휘, 신익희, 조소앙, 박용만, 이승만 등 좌우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상과 노선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손정도 목사가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란 사실도 이 기회에 밝혀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영화는 흑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김일성과의 관계를 생략하고 있지만, 손정도 목사의 '이웃사랑' 정신은 매우 철두철미했다. 그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 3년 동안 아버지를 잃은 소년 김일성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돌보아주었고, 그 때문에 김일성은 말년에 쓴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손정도 목사는 '친아버지처럼 존경'한 '은인'이었다는 언급을 남겼다. 북한의 역사가들이 손정도 목사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3년 평양에서는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손정도 목사 기념 남북학술대회를 열만큼 북한에서 손정도 목사연구에 대한 열의는 뜨거웠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영화 〈호조〉를 통해 전하는 신앙과 삶의 메시지는 매우 새롭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역사가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이 영화를 강추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진구

고신대 성경학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영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정치적 삶과 예술적 삶 사이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잘 알려진 이습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이다. 여우가 어느 동네에 사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하지만 접시에 담은 음식을 두루미는 먹을 수 없었다. 부리로 접시를 찌다가 힘이 빠진 두루미는 분을 삼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청했다. 두루미는 호리병 속에 음식을 담아 상을 차렸다. 주둥이가 뚫룩한 여우는 음식을 맛볼 수가 없었다. 음식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시시키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배려나 존중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현실 정치의 대립과 갈등의 여파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 때문에 일상의 삶은 정지되고 혼란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걱정스러워한다. 그동안 우리 현대사에 중대한 고비가 있었지만 이만한 혼돈을 경험해본 적이 또 있었을까. 필자는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권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예술가들의 '공감'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아이스킬로스(Aeschylus)의 <페르시아인들>(Persians)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주제로 한,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 입장에서 본 비극이다. 아이스킬로스는 아테네인들의 승리가 아닌 전사한 페르시아 군인들의 유가족, 특히 아내들에게 주목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들을 역명의 적국의 여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감정을 지닌 평범한 여인들로 해석하는 접근법을 폈다. 그리하여 관객들은

적국 국민의 개인적인 슬픔을 함께 느끼고 동참할 수 있었다. 비록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상대방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 셈이다.



클레어 패티의 <내 신발을 신고 1마일만 걸어봐>-퍼포먼스에 참가한 참여자들

두 번째 장면은 클레어 패티(Clare Patey)의 <내 신발을 신고 1마일만 걸어봐>(2018)라는 퍼포먼스이다. 작가는 런던 도심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클레어 패티는 사전에 각 방면의 사람들의 사연들을 인터뷰하여 참여자에게 들려주었다. 참여자는 간이 미술관에서 헤드폰을 빌려 쓰고 사전에 인터뷰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신발의 주인공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수영이 유일한 낙이라는 사람, 교도소에서 예술가가 된 화물 운전사 등. 참여자는 걷는 동안 신발의 주인공과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일체감이 들었다고 한다. 클레어 패티는 2021년 브릭스톤 폭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솜전투 퍼포먼스 퍼포머의 카드에는 참전용사의 이름, 나이, 소속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장면으로 '터너상 수상자' 제러미 델러(Jeremy Deller)의 거리 퍼포먼스를 들고 싶다. 제러미 델러는 솜 전투 백주년이 되던 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동 추모관>을 연출했다. 솜 전투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투였다. 군인 복장을 한 1,500명의 퍼포머들은 거리에서 만난 행인들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고 간혹 그들과 접촉할 때 '작은 묘비'로 불리는 '흰 카드'를 건넸다. 그 카드에는 전투 첫날 사망한 군인의 이름, 계급, 소속 부대가 표시되어 있었다. "군인이 준 카드를 살펴보니 그날 사망한 군인은 내 또래였다.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참여자의 소감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국의 깊은 정치적, 사회적 분열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는 '공감'에 기초를 둘 때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비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도움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완수의 일환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모든 구조에 도전해야 한다. '공감'은 침묵하게 대립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낮은 이해방법이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창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타자에게 공감할수록 '살림'과

양립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구조조차 '창조적으로 전복'(creatively subverted)시키는 힘이 증대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획기적 구상'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파커 파머(Parker J. Palmer)는 정치적 삶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모든 긴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현실'과 '가능성'의 '비극적 간극'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견디며 행동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참담한 '현실'에 너무 기울면 평화를 위해 힘쓰기보다 전쟁을 대비하며, 뜬구름잡기식 '가능성' 쪽에 너무 기울어지면 이상주의에 빠져 환상의 세계를 헤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머는 이 '비극적 간극' 속에서 행동하려면 효율성을 성패의 척도로 삼기보다 다음 물음들을 척도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본성의 선한 천사들을 불러내는 것에 충실한가? 진실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듣는 것에 충실한가? 공공선을 증언하라는 부름에 충실한가?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충실한가?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현실에 어울리는, 만물의 갱신에 대한 비전을 실현해가는 '창조적 전복'을 마음에 새겨 본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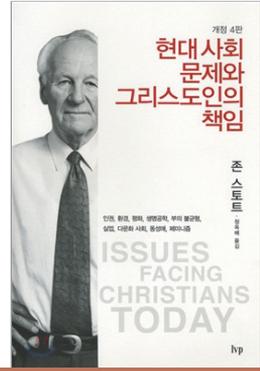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릴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권경선 (번동제일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 존 스토틀 / IVP / 2011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저자 존 스토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지도자였다. 2011년 사망하기까지 수많은 보수적,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며, 복음의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치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였다. 그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쟁, 인권, 환경, 개발, 노동 사업, 인종 문제, 성, 낙태, 생명, 동성애 등 매우 방대하다.

1장에서는 사회의 각종 이슈를 해석하는 중심으로 복음적 관점을 소개한다. 기존 복음주의 관점은 사회 이슈와는 담을 쌓은 채 복음 전도만 집중해왔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음 다섯 가지 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은 '신성한' 것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2)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형상이다. 3) 예수는 약자들의 그리스도였다. 4) 구원은 악을 제하는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 없다. 5)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책임 공동체이다. 저자는 이 다섯 가지 토대 위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가지 틀을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의 기준도 제시한다. 1)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존엄하다는 관점이다. 2) '타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3) '구속'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새로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관점이다. 4) '완성'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며, 교회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다는 관점이다. 또 저자는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어떤 복음주의자들과는 달리,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과 문화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요나 자유 방임이 아니라, 기독교적 지성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지성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틀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기독교적 지성'을 통해 세계, 사회, 인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복음주의 관점으로 풀어간다. 2부 4장에서 저자는 전 세계의 참혹한 전쟁과 테러 상황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은 공적 토론을 통한 평화

의 진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5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며 인간은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6장에서는 '개발과 원조'를 다루면서, 에이즈가 확산하는 나라들 가운데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쇠된 본성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도 함께 해야 함을 주장한다. 7장에서는 '인권'을 다루면서, 인권을 신성시하는 사조를 경계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즉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영역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인권과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3부에서는 경제문제, 인종, 다문화 등 사회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우선 인정한다. 8장은 노동과 실업 문제를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일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성취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온다."(257면) 또 노동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교회가 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한다. 9장은 비즈니스 문제를 다루는데, 저자는 사랑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가 충돌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의 경제문제의 복잡성을 인지하면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0장은 인종 문제를 다룬다. 인종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전혀 맞지 않으며, 교회는 다인종, 다문화적 특성을 보여야 함을 주장한다. 11장에서 저자는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다루면서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다. 탐욕과 교만과 물질주의를 경계하며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부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12장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3장에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결혼 언약을 유지하기 힘든 이들을 위한 목회적 관점을 소개한다. 14장, 15장은 낙태와 안락사 생명공학 문제를 다루는데, 저자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한 관점이 잘 나타난다. 16장에서 다룬 동성애 문제는 저자의 성경적 보수적 관점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의 타락과 탐욕을 경계하면서 책임적 관계를 강조한다.

저자는 복음주의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대응에 있어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진보적 그리스도인과 보수적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광장에서 맞붙게 되는 것을 흔히 본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저자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우리는 각자 입장에 따라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백 퍼센트 악인도, 백 퍼센트 선인도 없기에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신중히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수정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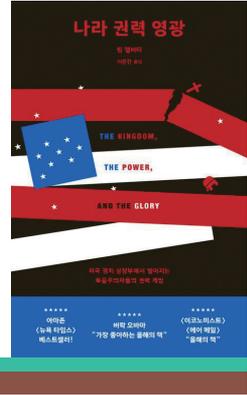


✍️ 글쓴이 권경선

변동제일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선교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5년부터 변동제일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로서 섬기며,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독교와 극우 정치의 결합에 대한 한 저널리스트의 취재기

김재완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인류학과 박사 수료)



〈나라 권력 영광〉 / 팀 앨버타 / 비아토르 / 2024

이 책은 미국에서의 정치적 극우와 복음주의의 유착을 파헤친다. 성공한 저널리스트이자 교회에서 나고 자란 목회자 자녀인 저자는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미국 전역의 교회, 기독교 대학, 선거운동 등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이야기들을 엮어내었다.

1부는 '미국'이 어떻게 복음주의자들의 우상이 되었는지 추적한다. 이야기는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 교회 목사들이 트럼프 지지 교인들에게 배교자로 찍히거나 강한 저항을 받는 일화들에서 출발한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일까? 장면은 1950년대 라디오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지역교회 목사였던 제리 팔웰(Jerry Falwell)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70년대에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운동이라는 국가 구원의 기획을 통해 민주당의 '세속주의적 정책'을 적으로 상징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범보수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다.

이들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담론 틀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 "미국은 위태로우며 기독교는 박해받고 있다." - "이대로라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 "(공화

당에 어떠한 도덕적 결함과 문제가 있더라도)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화당을 무조건 지지해야만 한다." 그렇게 공화당과 기독교 민족주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

2부는 선거 유세현장 및 여러 정치집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 현장들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미국 복음주의에 스며드는 양상을 보여주며, 정치적 승리 및 권력 쟁취가 궁극적 목적이 된 기독교의 모순을 드러낸다. 공화당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정치연설과 성경 메시지와 찬송가 합창이 뒤섞인다. 선거 유세 장소는 주의회 의사당과 대형교회를 갈마든다. 이제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트럼프 지지, 공화당, 우파, 낙태 반대, 동성애 혐오'와 같은 의미이다. 그 반대에 해당하는 낙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민자와 같은 이슈는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멸시시켜야 할 정치의제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후보자를 지지해서라도 말이다.

이를 두고, 저자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하는 모양새라고 말한다.(131면). 이 역설이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극단적인

인물들이 현실정치에서 득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의 옷을 입은 정치의 현장에서는 더 극단적일수록 더 쉽게 주류 '정치-종교' 무대에 들어설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는 행위는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197면)가 된다.

3부는 기독교의 진정한 영광은 권력과 지배와 승리가 아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달려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며 희망을 모색한다. 폭발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던 한 담임목사. 그는 미국을 이스라엘이 아닌 바빌론에 비유하여 설교한 이후 1,500명 이상의 교인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가 신앙을 저버렸다고 하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예수와 가깝게 지낸다.(15장). 공화당 및 기독교 민족주의에 반하는 언행으로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던 세 명의 신학자, 기업가, 변호사. 이들은 의기투합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비당파적으로' 원수 사랑, 겸손, 자비를 통해 문화에 참여할 수 있을지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만들었다.(18장). 남침례교 강경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적적으로 교단 총회장에 당선된 한 목사. 그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교단에 침투한 것을 두고 "꼬리가 개를 흔들게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19장).

성범죄에 연루된 교회를 고발하고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돕는 한 여성 활동가. 그녀는 구조적으로 신학이 악용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정체성을 잃으면 권력을 갈망하기 쉽고 권력을 손에 넣는데 필요한 도덕적 타협을 정당화하기 쉽다."(20장).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빌미로 돈, 성장, 권력, 보수적 이념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설립자 일가에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한 기독교 대학. 대학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한 교수는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며 반격해야 한다."라는 식의 문화 전쟁 프레임이 근원적인 문제라며 기독교 세계관을 재구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론부에서 저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문화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며,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둘 사이에 있는 미묘한 간극을 극대화하면서, 이 둘이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5년 포스트 계엄의 대한민국에서 이 책을 읽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치-종교' 상황을 일일이 대응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서의 과정은 그 유혹에 저항하다가도 이내 유혹에 속절없이 빠져들기를 무한 반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물론 한국 범보수 세력이 미국과 같이 기독교 민족주의에 의해 대거 결집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한반도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보다 그 아픔이 낳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국가와 체제를 우상화고 돈벌이를 하는 '정치-종교' 끈들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욕설, 거짓, 불법, 심지어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당파성이 '기독교의 얼굴'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자가 관찰한 미국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위기는 실제적, 유비적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모두 교차하며 무수한 질문거리를 던져준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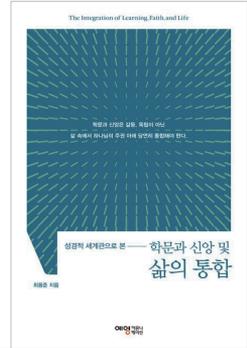


✍ 글쓴이 김재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인류학과 박사 수료 후 'Becoming peacemakers: An ethnography of the Christ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ns'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한 현장연구를 진행 중이다. 총신대 신학과 졸업 후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서로는 '이중적 목회자'의 문제를 인류학의 시각에서 풀어낸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이레서원, 2022)가 있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하여

석중준 (서울대학교 캠퍼스 선교사)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학문과 신앙 및 삶의 통합〉 / 최용준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25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학문과 신앙 및 삶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하여 다수 학자의 사상 연구와 저술, 강연 활동을 이어 온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의 신작이다. 저자는 이미 〈응답하는 인간〉(SFC),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예영커뮤니케이션),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1, 2〉(예영커뮤니케이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예영커뮤니케이션), 〈성경적 세계관 강의〉(CUP) 등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지난 십여 년간 한동대학교에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과목을 강의해 온 저자는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학문과 신앙 및 삶의 통합〉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따를 때 학문과 신앙은 같등이나 독립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땅히 통합되어야 할 이유와 토대를 제공하는 여러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사상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과 내용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과학자 이안 바버(Ian Barbour)가 제시하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네 가지 유형 모델에서 통찰을 받은 ‘학문과 신앙’의

관계에 관한 네 가지 모델, 즉 ‘갈등 모델’, ‘독립 모델’, ‘대화 모델’, ‘통합 모델’을 차례로 소개한 후, 왜 ‘통합 모델’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2장은 19세기 네덜란드의 저명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자 법학자였던 흐른 판 프린스터어(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의 생애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고찰이다. 저자에 따르면, 판 프린스터어 사상의 비범한 가치는 그가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시대 정신에 휘둘리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에 굳게 서서 모범을 보였을 뿐 아니라, 후계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데 있었다.

3장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내용이다. 카이퍼는 잘 알려진 대로 신학자,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정치가, 언론인, 자유대학교를 세운 교육가였다. 3장에서 저자는 특별히 카이퍼가 〈칼뱅주의 강의〉 4장에서 다룬 ‘칼뱅주의와 학문’에 관한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카이퍼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학문도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에

게 복잡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4장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년 저서인 <반혁명 국가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관에 관한 고찰이다. 저자는 카이퍼가 국회의원과 수상직을 역임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정치와 신앙을 통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영역주권론’을 주창하였는데, 이것은 국가를 절대시하는 국가주의의 만연으로 교회, 교육 및 가정의 영역조차 국가가 통제하려는 경향에 대한 반대 담론이었다.

5장은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내용이다. 도여베르트는 카이퍼의 사상을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사상으로 발전시킨 후계자였는데, 특별히 그는 이른바 ‘이론적 사고의 선형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정초될 수 있는지, 신앙과 연계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6장은 헨드릭 판 리센(Hendrik van Riessen, 1911-2000)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 사상에 대하여 다룬다. 판 리센은 카이퍼와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계승한 그리스도인 철학자로서, 모든 학문은 결코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신앙의 여부에 좌우되기에, 모든 기독교 대학은 모든 학문 영역에 성경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7장은 로타 크라이식(Lothar Kreyssig, 1898-1986)의 성경적 화해 사상에 대한 고찰이다. 크라이식은 독일 나치 시대에 그리스도인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자기

신앙과 법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특별히 장애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썼으며,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교회를 통해 독일이 침략한 국가들의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실천하도록 도왔다. 저자는 크라이식의 이런 활동에 주목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저자는 책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학문과 신앙 그리고 삶을 통합함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엡 4:13)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머리말). 왜냐하면 저자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학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문화 명령적 소명이자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기에 그 결과가 문화변혁의 열매로까지 나타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학교 캠퍼스 선교사(2012~현재)이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체계신학, Ph.D), 서울대학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학생 북클럽 지도목사, 서울대 기대모(기독교대학원생모임) 지도목사, 침신대 겸임교수,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주경신학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 훈련

김종호 (예심교회 담임목사)



학교와 교회 사역의 초기부터 내가 받은 제자 훈련만으로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청소년의 신앙 인격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큐티가 세계관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 1983년에 한국창조과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 등에 가입하며 자료들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큐티 적용의 주경신학 자료가 없는 것을 알고 본격적인 신학 연구를 시작했다. 신대원 M.Div를 거쳐 Th.M과 Th.D과정에서 구약신학을 전공하며 주경신학 방법론의 '성경적 세계관'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의 추가 검증을 위하여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창조과학 학술대회(2001.8.18)'에 Th.M 논문인 '히브리 구문론에 비추어 본 창 1:1-2:3의 창조기사의 구조와 의미'를 제출하여 2001년 제1회 '청년창조과학논문공모' 금상을 수상하여 이것을 기초로 2001년에 청소년 세계관을 뜻대로 하는 교회를 설립하였다.

교회의 예배는 세계관 관점의 양육설교가 중심이었고, 검증된 논문을 근거로 '실천적성경적세계관' 훈련 시리즈 6권을 완성하여 훈련 교재로 사용중이다. 1권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창 1:1-2:3)'이며, 2권은 '성경적 결혼관(창 1:26-2:25)'이고, 3권은 '성경적 부부관(아가서)'이며, 4권은 '성경적 인생관(전도서)'이다. 그리고 5권은 '성경적 직무관(창 1:1-2:3)'이며, 6권은 '성경적 노동관(느헤미야)'인데, 겨울수련회에서 매년 한 가지 주제씩 6년간 순환형으로 다루며 집중적인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훈련된 1세대 중심으로 본격적인 청소년 훈련을 진행하여 2세대 중 첫째 자녀가 중2가 되는 시기부터 매년 중 2를 중심으로 7주간 6가지 주제로 '성인식' 교육을 진행하며 청소년세계관을 훈련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이상 전교인이 매일 큐티와 나눔을 진행하며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을 점검하고, 제자훈련과 구역모임을 통하여 그 적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다양한 결손 자녀들로 출발한 교회가 성경적 인격을 지니고 가정을 이룬 성도들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종호

예심교회 담임목사이다.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와 물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백석신학대학원 (M.Div)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M, 구약신학 전공) 과정을 거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과정(Th.D)에서 구약신학을 연구하였다. 예심교회 설립 전에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중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재직했다.



예심교회 기독교세계관프로그램 수료자 소감문

성경적 세계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예심교회는 내가 처음으로 다니게 된 교회이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곳이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던 나의 삶은 곤고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 세계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안목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에 질서가 잡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수련회에서 진행되는 '실천적성경적세계관' 훈련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매일 큐티를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양육모임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 결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며 청소년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다. 또한, 성경적 결혼관을 바탕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며, 결혼 6년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창업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윤희



예심교회 집사

현재 예심교회의 청소년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인 '성인식 사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성경적 세계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인식 사전 교육'에는 매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격려 받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간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귀함과 감사를 깨닫는다. 교육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의 이론적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예민한 주제들도 함께 탐구한다. 또한, 삶 나눔과 큐티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자라가고 있으며, 성경적 세계관 훈련은 이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경적 세계관의 은혜와 기쁨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기쁨을 전하며, 혼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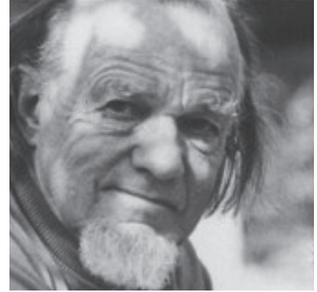


예심교회 세계관프로그램 간사



프란시스 쉐퍼와 기독교 세계관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 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 인물들을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론가들과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운동가들로 크게 나눈다면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어디에 속할까? 필자가 보기에 쉐퍼는 이 두 그룹에 걸쳐 있지만, 운동가의 영역으로 좀 더 기울어진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쉐퍼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성장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쉐퍼는 191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저먼타운에서 독일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5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코넬리우스 반 틸과 그레삼 메이첸의 지도를 받았고, 1937년 페이스 신학교로 전학하여 1938년에 졸업했다. 페이스 신학교는 미국장로교회(현재 정통장로교회)와 성경장로교회가 분열되면서 설립되었다. 그는 성경장로교회에서 졸업한 첫 학생이자 안수를 받은 첫 졸업생이었다. 교육 배경으로 본다면 그는 보수적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 배경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후에 기독교적 진리의 우주성, 복음의 공공성에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쉐퍼가 살았던 시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세기의 주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차례 세계 대전과 월남전을 경험했다. 그 중에도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1차 세계 대전과는 달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이었다는 2차 세계 대전, 20여 년에 걸친 지루하고도 잔인했던 월남전, 그리고 그 전쟁들의 후유증은 쉐퍼로 하여금 근본주의의 좁은 복음의 틀을 넘어서 인간, 세상, 정치 등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갖게 했다.

전쟁에 더하여 쉐퍼의 세계관적 관심에 일조한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조류나 운동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 대전 후에 나타난 유럽의 정신적, 영적 공황상태,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히피 운동, 여성해방 운동,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등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교회가 사회적 이슈나 흐름에 대해 침묵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3년 WCC가 주관한 방콕대회가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폭넓은 구원 개념을 논의하면서 ‘선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일종의 충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비단 웨퍼에게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다. 당시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이었던 빌리 그래함, 존 스토틀, 피터 바이어하우스, 해럴드 오켄가, 칼 헨리 등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로잔 대회의 주제는 사회적 도전과 변화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로잔 대회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 기독교 선교의 동력이 소진한 1970년대 기독교 선교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퍼는 다양한 사회적 도전과 이슈들에 대한 대담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그의 다양한 저작들로 이어졌다.

웨퍼는 수많은 대중강연과 더불어 철학, 문화, 사상, 예술, 영성, 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22권에 이르는 책들을 썼다. 그는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탁월한 소통자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구 사상과 문화의 발달과 쇠퇴를 다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란 영화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별세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저작과 <그러면 우리는...>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 여러 저작 중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그의 생각을 잘 요약한 책은 별세하기 3년 전에 출간한 <기독교인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특히 윤리, 정치, 사회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을 시도한다. 책에서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 이원론적인 기독교 관념은 참된 성경적 관념이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이 모든 영역 안에는 단지 종교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127면)라고 했다.

웨퍼는 대중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알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저술과 강의를 통해 기독교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답을 제공한다는 세계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라브리’라는 말이 ‘피난처’를 의미하듯이 이곳은 20세기 강력한 세속주의의 공격에 대한 피난처의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추구했다.” 그가 라브리에서 “기독교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라고 가르친 것은 라브리가 전형적인 세계관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계몽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전통문화에 기반한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신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웨퍼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한 절망과 더불어 복음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반성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한 배경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기독교적 진리의 우주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를 거쳐 VIEW(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다.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캐나다에 주빌리교회를 개척하여 11년간 담임목회를 하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를 역임했다.

제8회 기독교청년학생 북 콘서트

바로 보기, 바로 살기

: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지난 2025년 2월 7일(금) 저녁부터 8일(토) 낮까지 '제8회 기독교청년학생 북 콘서트'가 '바로 보기, 바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후원으로 서울대학교(11동)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는 현장 등록자 약 50명과 온라인(Zoom) 참여자 약 15명이었다. 이번 북 콘서트의 주제는 '바로 보기, 바로 살기'였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붙들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프닝 사회에서 석종준 목사(서울대 선교사)는 행사가 자칫 공부하는 관성의 경직된 모임이 될 것을 경계하면서, "여기는 학술대회가 아니고, 만남과 교제가 일차적 목적이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 나눈 책은 <계시철학>(헤르만 바빙크)과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제임스 헌터)였다. 그리고 초청특강 시간에는 강영안 박사(Calvin Theological Seminary 철학신학 교수, 한동대 석좌교수)를 강사로 초대하여 귀한 메시지와 해안을 얻는 기회를 누렸다. 감사한 점은 이번 북 콘서트에도 여러 후원과 응원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장거리 참여자를 위한 남자 숙소는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에서 '서울대 기독교인 회관'을, 여자 숙소와 강사 숙소는 신국원 교수(총신대 명예교수)와 조제열 교수(서울대 수의대 학장)께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김은정 박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헌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 탁장한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셋별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등 선배들의 간식과 음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첫째 날 저녁 식사, 박동열 교수(서울대 불어교육과)의 둘째 날 아침 식사, 상대원침례교회의 이동식 앰프와 무선 마이크 등 다양하고 세세한 후원의 손길이 있었다.



첫째 날(2/7 금, 저녁 7:30~10:40)은 윤헌준 교수의 사회로 <계시철학>(바빙크, 총 10장)을 가지고 10명의 학생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나눔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계시철학의 개념'(박진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부생), 2장과 3장 '계시와 철학'(남명현, 서울대 종교학과, 철학과 졸업생), 4장 '계시와 자연'(김다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5장 '계시와 역사'(장요한, 장신대 선교학 박사과정), 6장 '계시와 종교'(정수진, 서울대 수의대 박사과정), 7장 '계시와 기독교'(김건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8장 '계시와 종교경험'(김은진, 서울대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9장 '계시와 문화'(한기돈,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부 박사과정), 10장 '계시와 미래'(장석현,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각 발제 후에는 뜨거워진 자유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날(2/8 토, 오전 9:30~오후 12:30)은 홍성욱 박사(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카이스트 RACS 간사)의 사회로 첫 번째 시간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제임스 헌터)의 발제와 자유토론, 두 번째 시간은 초청특강과 질의 문답이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의 순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의 1부 '기독교와 세계 변혁'의 발제(채민석,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2부 '권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의 발제(박세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3부 '새로운 도시광장을 위해'의 발제(이지성, 카이스트 기계공학부 석사과정)와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시간은 한국 철학계의 원로이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지성인인 강영안 박사의 초청특강과 학생들의 질의 문답으로 채워졌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 나눈 책들은 모두 2024년 가을학기부터 '서울대 기독교학생복클럽'과 '카이스트 기독교학생복클럽'(RACS)이 각각의 정기 모임에서 이미 나눈 것이었다. 특별히 이번 북 콘서트의 주제가 '바로 보기, 바로 살기'가 된 배경은, <계시철학>이 기독교 세계관의 대표적 고전으로 '바로 보기'와 연결되고,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는 '바로 살기'를 위한 그리스도인 종교사회학자의 탁월한 혜안을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 감사하게도 참가한 청년들 다수는 이번 북 콘서트 내용이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방학마다 개최되는 이 북 콘서트를 통해서 앞으로도 캠퍼스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우리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 다윗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만연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새벽이슬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안이자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2025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완료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7시 / 장소: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안건 : 1) 2024년 결산 및 감사 보고 & 사업보고
 2) 2025년 예산 편성안 및 임원 선출 & 2025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완료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4시30분 / 장소: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2025년 제2차 실행위원회 개최 완료

일시 : 2025년 2월 4일 오후 4:00 / 장소: 동역회사무실(수서동)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0권 1호(3월 31일 발간)

<신앙과 학문> 30권 1호는 현재 7편의 투고 논문이 심사 중이다.

제8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 콘서트 행사 완료

주제 : 바로 보기, 바로 살기
 - 발제와 토론 : <계시철학>(바빙크),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헌터)
 - 특강과 토론 : 강영안 박사(Calvin Seminary 철학신학 교수 및 한동대 석좌교수)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오후 7:00 - 2월 8일(토) 낮 12:40

장소 : 서울대 사범대학 11동 107호

동영상 자료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은퇴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기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항(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부총무 박지희(침신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목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줌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 (VIEWtiful.ca 참고)
-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CCTC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 6학기 '하나님, 청지기가 뭐예요'와 어린이/청소년 월패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종강했고, 3월 개강반을 모집 중이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제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 교육을 준비하는 '제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을 종강했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기'를 종강했거, '순전한 기독교'(3월 개강반)을 모집 중이다.
 - **대학생 교육 종강** : 1) 아신대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2) 평택대 학부: '기독교세계관과 현대과학' & '기독교 고전 읽기' & 기독교세계관 MTS(석사: '기독교세계관'
 - **교회 기독교세계관 교육** : 부산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에서 4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꿈이 뭐예요', 삼일교회(담임 송태근)에서 5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 성광교회(담임 남세주)에서 6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청지기가 뭐예요'를 종강했다.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신입생 모집** : CTC의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학 석사 프로그램이다.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분별하며,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5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3월 개강)**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5기 기독교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1) **제1회 크리스천 독서 컨퍼런스 개최**(2월 15일 월요일 오후 1~8시, 목동제자교회)

* 참여단체 : CUP, 조이박스, 흥성사, 샘솟는기쁨, 세움복스 등 5개 출판사 & 5개 독서모임

2) 곧 출간 될 신간 소식



◀**에니어그램 영성훈련**

아델 & 더그 칼훈, 클레어 & 스킷 러그리지 지음 | 이재명 등 옮김
- 제자의 삶을 위한 에니어그램 가이드북

◀**살아있는 뇌 변화하는 뇌**

박시운 지음
- 신경재활 전문의가 전하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뇌과학

◀**말씀 중심 어린이 365 기도**

사라 영 지음 | 이론정 옮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 (2024년 12월, 2025년 1월 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12월	2025년 1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12월	2025년 1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870,000	6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455,000	4,855,000
	임원회비	650,000	830,000		기타급여	400,000	1,150,000
	일반회비	3,800,000	3,650,000		소계	5,855,000	6,005,000
	기관후원금	5,100,000	3,3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68,411	513,192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38,652	132,072
	CTC후원금	60,000	10,000		우편료	0	2,240
	VIEW후원금	1,040,000	880,000		소모품비	0	18,040
	기타후원금	0	0		식비	163,860	178,700
	월보구독료	355,000	490,000		복리후생비	0	961,81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39,230	490,175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4대보험료	961,810	0
	기타	0	0		회의비	0	160,160
					회계용역비	55,000	38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03,9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30,028	127,990	
소계	11,875,000	9,880,000	소계	3,310,891	3,024,379		
기타수입	일반이자	7,246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030,760	1,030,81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090,485	1,090,54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73,66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42,18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429,000	70,000
	예수금	500,380	480,580		소계	429,000	3,385,840
				기타	세금	0	73,620
			잡비		800	0	
소계	507,626	480,580	소계		800	73,62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600,000
					세계관기타	0	600,000
소계	0	0	소계		0	1,2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8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2,323,000
	학술지게재료	5,170,000	1,010,000		학술지발송비	0	190,150
	저작권료	0	2,449,489		학술지심사료	0	1,150,00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232,000	0
	소계	5,340,000	3,639,489		소계	6,843,280	3,663,15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155,340	1,075,72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75,725	4,990,615
	전월 이니시스입금	0	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180,000
	소계	1,155,340	1,085,725		소계	1,085,725	5,170,615
당월 수입액		18,877,966	15,085,794	당월 지출액		12,003,901	23,613,144
전월 이월액		11,167,010	18,041,075	차월 이월액 (잔액)		18,041,075	9,513,725

* CMS, 이니시스 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4년 12월)

5천 강연희,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삼욱, 김새별, 김성근,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영, 김정은,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수아,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성근,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대용,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을재, 고철홍, 구준호, 권경호,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농우,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삼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례,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이람, 김아론, 김영옥, 김영윤,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중원, 김종일,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연, 남선우, 남현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도, 류하원, 박민준, 박동현, 박민준,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정,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송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승규, 양행오,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오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희,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연,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운석, 이운재, 이운정, 이운택,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우,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종민,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김정모,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김홍빈, 우병훈, 5만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마은희,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우, 6만 석종준, 송승철, 신혜경, 허정미, 7만 최태연, 8만 임재광,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장수영, 12만 강진구, 김민철, 박문식, 심상수, 최철일, 15만 최원일, 20만 양성만,

계 6,83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6만 고려신학대학원도서관, 10만 개독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서울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향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한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사)김영드림선교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200만 할렙루야교회,

계 5,210,000원

전체 12,045,000원

회원후원

(2025년 1월)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삼욱, 김새별, 김성근,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영, 김정은,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은미,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수아,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을재, 고철홍, 구준호, 권경호,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농우,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삼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례,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이람, 김아론, 김영옥, 김영윤,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중원, 김종일,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연, 남선우, 남현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도, 모상근, 오아론, 박농안, 박동현, 박민준,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정,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송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승규, 양행오,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희,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연,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운석, 이운재, 이운정, 이운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현경,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우,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종민,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김민서,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선정,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장덕수,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강용만, 우병훈, 5만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황준우, 6만 석종준, 송승철, 오종현, 이수진, 7만 최태연, 8만 문석우, 9만 이창우, 10만 김지연,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양성만, 윤완철, 장수영, 홍숙의, 12만 박상훈, 김민철, 박문식, 15만 최원일,

계 6,590,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아신대학교도서관, 오종현, 이수진, 장로회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개독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람교회, 예수향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한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계 3,470,000원

전체 10,060,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삿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체계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승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호(30권 2호) 투고 마감일은 4월 30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투고 규정 9.(2) 국문 참고문헌 영문병기 -> 규정 삭제

*편집 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2) 원고마감일 -> 각호 발행일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